

# 목포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안정화

### 하루 민원 181건→32건으로 줄어 통학시간대 고려 대형차량 배차 탑승객 데이터 분석 노선 재조정

목포시가 전면 시행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한 달이 지나면서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2월26일 노선의 굴곡도와 중복도 최소화, 영산로 집중 노선의 백년대로 분산화 등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기존 14개에서 8개로 간소화하는 노선개편을 단행했다. 개편 초기 하루 평균 최대 181건에 달하던 노선 개편 민원은 최근 32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지난 1주일 사이 접수된 민원은 223건으로 이는 시범운영 기간인 지난 2월26일부터 3월3일에 접수된

1271건 대비 82% 가량 줄어들었다. 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운수업체와 용역사 등 실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원대응 합동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노선개편 시행 이후 접수된 주요 민원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관내 주요 학교를 경유하는 순환66(66-1)번의 통학 시간대 이용객 몰림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해 조치했다. 시는 교통카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의 중형 크기인 차량을 간선 3번의 대형차와 상호 교체해 줄 것을 운수업체 측에 요청했고, 운수업체 측은 이를 수용해 오는 5일부터 순환 66(66-1)번의 차량 크기를 대형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또 고하도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하교 시간대를 고려해 평화광장에서 오후 4시30분, 오후 7시40분에 출발하는 남만 22(22-1)번의 출발시간을 오

후 5시, 오후 8시10분으로 조정하고 지난 1일부터 즉시 시행했다. 시는 이처럼 즉각적인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조치하고 전통시장과 백련지구 경유 등 노선 신설 요청과 관련해서는 탑승객 데이터 등 자료 분석을 통해 필요시 노선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선별 정류장 신설 및 경유, 정류장 간격 조정 및 이설, 버스 행선지 가독성 제고 방안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데이터 분석 및 예산확보 등을 통해 상반기 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숙 목포시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영암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봉사 단원들이 지난 31일 마을 내린 '영암왕인문화축제'를 즐기고 있다.

## 영암왕인축제 외국인 주민들도 함께 즐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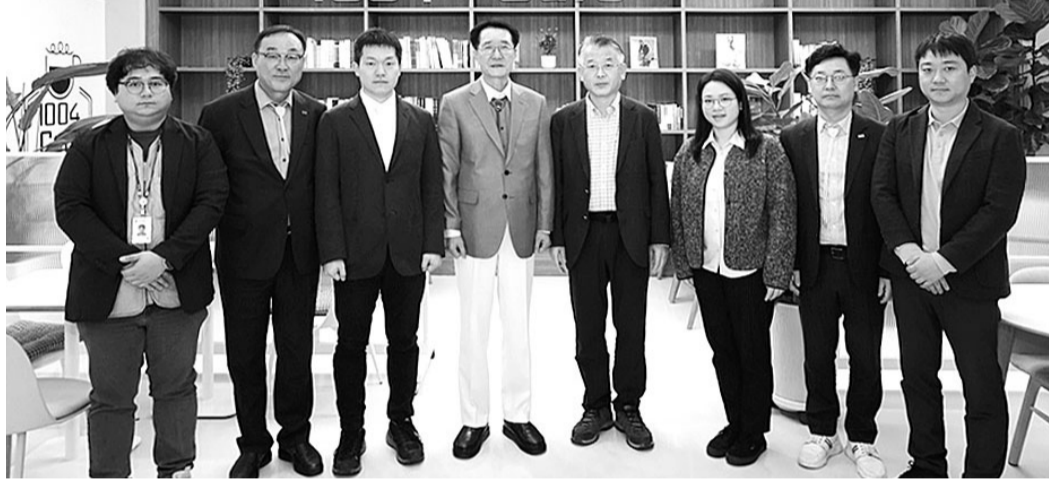
### 100여명 문화체험하고 청소봉사

영암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지난 31일 마을 내린 '영암왕인문화축제'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 외국인주민센터 자원봉사 단원들은 이틀간 축제장을 찾아 견학하고 환경정화를 했다. 자녀들과 함께 참여한 외국인 가정, 근로자, 재외동포 등 100여 명의 외국인 주민들이 참여했다. 봉사 단원들은 이곳에서 소풍을 즐기고 삼호 강강술래, 백제 의상체험, 민속놀이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했다. 영암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 차이를 이해해

선하기 위해 지역 혁신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축제 견학과 봉사는 '이주민? 이 구역 주민이야'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활동에 참여한 굴리씨는 "지역에서 가장 큰 축제에 봉사자로 참여해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봉사나 문화체험 활동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두배 센터장은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를 만들어 의미 있고, 영암의 아름다운 전통을 느끼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을 높일 기회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오래 정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 해남읍 중심도로 전봇대 없는 도심으로 이번달 지중화 착공 1810m...내년 상반기 완료

해남군이 해남읍 중심도로의 전선과 통신선을 땅속으로 매설하는 지중화사업을 추진한다. 사업구간은 해남읍 북부순환로 해남군청 사거리-주공1차아파트-서림공원-구광주은행사거리-중앙1로(천변교) 구간 양방향 1810m이다. 내년 상반기 완료 목표로 실시설계 및 공법 선정을 완료한 가운데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북부순환로와 중앙1로는 양쪽으로 학교·상가가 밀집돼 있고, 읍내에서도 차량 통행과 보행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지중화 사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지중화 사업으로 시내 중심가의 미관 개선은 물론 학생 등 보행자들의 안전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읍 지중화 공사는 신청사 건립과 함께 군청 주변 지중화 공사는 완료됐으며, 현재 서림공원-천변교 구간 지중화 공사가 진행되는 등 원도심과 학교 주변 통학로 시가지 지중화사업은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시가지 도로에 대한 지중화 공사 완료되면 전봇대와 전선없는 쾌적한 시가지 환경이 조성되고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일본 람사르습지센터 대표단이 지난 1일 신안을 찾아 박우량(왼쪽 네 번째) 군수와 갯벌 보전을 위한 국제 교류를 약속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 신안군 세계자연유산 갯벌 보전 국제교류 추진

### 5월 일본 지자체들과 교류행사

신안군은 오는 5월 일본 지방자치단체 3곳이 신안을 찾아 갯벌 보전을 위한 국제 교류를 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신안을 찾는 지자체는 일본 규슈 최대의 만인 아리아케와 인접한 가시마시, 사가시, 아라오시 등 3곳이다. 신안군은 세계자연유산인 신안 갯벌의 지속적인 보전을 위해 이들 지자체, 람사르습지센터와 국제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안 갯벌은 국제적 보호종인 도요·물떼새를 포함한 해양성 조류의 중간 기착지이다. 지난 2021년 1100km에 이르는 광활한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생물 다양성이 우수한 이동성 물새의 국제적 서식지로서 인정받아 동아시아-대양주 이동 경로 서식지(EAAFP), 생물권보전지역, 갯벌도립공원 등 다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일본 규슈 북서부 만(瀨) 아리아케는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에 걸쳐 있다. 아리아케 갯벌 10.29km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

정됐다. 습지보호지역은 한국의 갯벌 자연유산처럼 3개 지자체(가시마시·사가시·아라오시)가 공동 관리하고 있다. 신안 갯벌과 일본 아리아케 갯벌은 다양한 멸종위기 조류가 살고, 김·어패류 양식 등으로 지역민이 생활 터전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닮은 구석이 많다. 일본 람사르습지센터 사무국장과의 일행은 지난 1일 신안을 찾아 갯벌을 둘러봤다. 일본 대표단은 세계유산에 등재되기까지 신안군의 15년간의 노력과 비결, 군민들의 지원 등 여러 가지 성과 등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또한 오는 5월 일본 습지보호지역을 관리하는 3개 지자체 관계자가 신안군을 방문해 갯벌 보전을 위한 국제 교류 워크숍을 추진하는 데 상호 협의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세계자연유산인 신안 갯벌은 지속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서는 앞으로의 관리와 지역 주민들의 관심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교류를 통해 갯벌 보전과 갯벌 생태계를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결 등 다양한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진도군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체계 '행복e음' 사용자 전산 교육을 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 진도군 사회보장정보체계 '행복e음' 사용자 전산 교육

진도군은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체계 '행복e음' 사용자 전산 교육을 벌였다고 4일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체계 '행복e음'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빈틈없는 사례 관리를 위해 마련된 시스템이다. 교육에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전문강사를 초청해 새롭게 도입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체계 '행복e음'의 주요 내용과 초기상담, 신청정보등록, 효과적인 통합사례관리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통합 사례 관리는 다양하고 복잡한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활용하면 복합적이고 다양한 복지 욕구를 가진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초기 상담부터 종결까지 10단계의 절차를 거쳐 필요한 자원의 통합적인 연계와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된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